5·18 구속부상자회 집행부 사퇴 촉구

비대위 기자회견 수사 의뢰해 사실 관계 밝힐 것

회장 "횡령 없어…특정인 이사회 보고 안한 것"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25일 집행부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행부 사퇴를 촉구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는 지난 10여 년간 5·18 기념·자유공원 내 자동판매기 등을 운영했지만, 총회나 이사회에 재정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희승 구속부상자회장과 특정인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착복·횡령했다"며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남도는 매년 회원 자녀(대학생·중고교생)에게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집행부는 약 12년간 '장학금 절반을 본회로 입금시키라'는 반강요적 행태로 착취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본회 회장·감사·이사 선출 과정에 입후보 비용 진입 장벽이 높고, 등록비 대납 및 등록비가 특정인에게 되돌아가는 관행이 이어졌다"며 "'특정인이 임원 선거 등록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선거 뒤 다시 본회 통장에서 찾아갔다'는 증거는 본회 통장 입출금 내역에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됐지만, 양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무효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꾀하려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며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집행부는 사퇴하고, 횡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임시 총회를 열어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연좌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희승 회장은 "복지사업단장이 개인 돈을 투자해 매점과 자판기 일부를 운영했지만,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장학금과 또한 기부금 형태로 받았다. 회원 본인이 기부금에 동의하고 송금을 해준 것이다. 횡령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최남규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2심 국선변호인 3명 선임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국선변호인단이 구성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으로 권태섭(55·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여), 김지예(32·변호사시험 5회·여) 변호사를 선정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보이콧을 선언하자 조현권(63·15기)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2심 재판부는 심리 범위가 줄어들어 3명만 정한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단과 영재센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순실씨 항소심을 이미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병합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씨와 병합을 통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뉴시스

갓꽃 나들이 나왔어요 맑은 날씨를 보인 25일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요산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활짝핀 갓꽃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올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초등생까지 확대

올해 가을부터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기록 확인제도가 실시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5일 제8회 예방접종주간을 맞아 연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매년 겨울철 국민들의 질병부담을 높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60개월~12세)들에 올해 가을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6~59개월 어린이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질병, 특히 감염병은 사전예방활동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얻도록 하는 백신투여는 개개인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사전 예방효과 외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계부담 절감측면에서도 공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2세이하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일부 백신은 지원연령 다름)는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IPV)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으로 어린이 1명당 소요되는 비용은 약 150만원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기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기록 확인'과 백신 거부운동 방지를 위한 '이상반응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교육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인터넷카페나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백신이상 반응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예방접종 거부 사례를 막기 위해 의과학적 정보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유정서 큰불로 최소 10명 사망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의 유정에서 큰불이 일어나 최소한 10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25일 밝혔다.

수토포 푸르워 재난관리청 대변인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수마트라 섬 북단에 있는 아체 티무르의 유정에서 발생했다.

유정에서 넘쳐흐르는 기름을 가져가려고 주변 마을 주민 수십 명이 몰려든 상황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인근 일대를 덮치면서 이 같은 참사를 빚었다.

수토포 대변인은 불이 삽시간에 번짐에 따라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갇히면서 그대로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불은 누군가 유정에 박힌 파이프를 용접하는 동안 발화한 것으로 수토포 대변인은 설명했다.

화재가 이어지는 동안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으며 인명피해 외에서 가옥 3채가 전소됐다.

수토포 대변인은 깊이 약 250m에 이르는 유정에서 생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가 1시간 뒤에야 도착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서둘러 후송했으며 사상자와 대피자 수를 조사 중이라고 말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영 석유가스사 PT 페르타미나는 특수 진화기술을 사용해 불길을 잡을 계획이라고 한다.

르완다 집단학살 희생 200여명 시신 발굴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의 희생자 유해 200여구가 수도 키갈리 부근의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되었다고 생존자 단체인 이부카가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수도 가사보 구의 로소로로에 있는 30미터 깊이의 구덩이에서 발굴된 유해들은 현재 교도소 구내에 보존되어 제대로된 장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부카 현지 지부장 테오게네 카바감비레는 말했다. 그는 아직도 부근에 3군데의 대형 매장지가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 생존자는 "왜 이런 큰 집단 무덤을 발견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건 정말 힘든 일이다. 생존자들은 아직도 이 지역 부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1994년 4월 6일 르완다에서는 주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뒤에 3개월 동안 대 학살이 벌어졌다. 투치족에 대한 인종청소로 죽은 사람은 주로 투치족과 일부 중도파 후투 족을 합쳐서 100만명이 넘었다.

카바감비레는 이 지역에서 학살당한 3000명의 희생자들이 모두 이번에 발굴된 집단 매장지에 던져 넣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론토 차량공격 용의자, 1급 살인혐의로 기소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공격 사건의 용의자가 24일(현지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용의자 알렉 미나시안(25)은 이날 법원에서 1급 살인 혐의를 받았다. 당국은 미나시안이 저지른 공격이 의심의 여지 없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미나시안은 전날 토론토 북부 외곽지역에서 흰색 밴 차량을 이용해 인도의 보행자들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사망자 10명, 부상자가 최소 16명 발생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는 한국인도 포함됐다.

랄프 구달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미나시안이 캐나다의 정보 및 보안기관의 용의선상에 없었던 인물"이라며 "현재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를 근거로 이 사건과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크 손더스 토론토 경찰서장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들이 회복하고 있다"며 "연방 및 지방 경찰들이 (부상자 진술을 토대로)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쥐스탱 트뤼토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캐나다 국민이 이 무의미한 공격에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을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는 자유롭고 열린 국가로 남아야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캐나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나시안의 동창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다소 이상했던 친구"라고 설명했다.

한 동창은 현지 언론에 "미나시안이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머리와 손을 계속 문질렀다"고 전했다.